

시민공감 소통한마당 '호응'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남원시, 23개 읍·면·동 순회 '쌍방향 참여형 소통 방식' 운영 완료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남원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2월 10일 대산면을 끝으로 약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한마당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남원시가 추진해 온 주요 시정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각 읍·면·동의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2일 산동면에서 시작,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했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 형식을 벗어나 시민이 질문하고 시장이 답하는 '쌍방향 참여형 소통 방식'으로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는 농로·수로 정비 등 생활 밀착형 민원부터 지역 발전과 직결된 중·장기 현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소통 한마당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은 300여 건으로, 농로·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농촌 기반 분야와 도로·교통, 하천 정비 등 생활 SOC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상습 침수 구간 개선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생활 안전 분야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남원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2월 10일 대산면을 끝으로 약 3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남원시는 이번에 접수된 모든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로·수로 정비 등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급성이 높은 재난·안전 및 농업 기반 사업은 예산에 우선 반영해 상반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불편과 직결된 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추진 상황과 조치 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책임 소통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이번 소통 한마당을 통해 접수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부서별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처리 계획을 확정할 후, 그 결과를 건의한 시민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남원시 행정지원과 이은주 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는 곧 남원 시정의 나침반이다. 이번 소통 한마당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소통의 사각지대가 없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 안정적 정착 위해 추진

임실군이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실질적인 주거 복지 강화에 나선다.

이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실군은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12가구에 1억 6천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 8가구에 1억 5천만원 등 총 20가구에 3억 1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도 저소득층 37가구와 신혼부부 및 청년 27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의 신혼부부,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청년이다.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



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2회, 1자녀 가구는 3회, 2자녀이상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K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실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임실도주공아파트와 예코리아파트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임실읍·관촌면·오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과 민간임대, 민간분양을 아우르는 총 1,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개강

순창군은 10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 교육장에서 지역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실습 중심의 가공 창업 교육을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2월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4월 14일까지 총 10회, 45시



간 동안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필요한 이론 수업과 함께 HACCP 위생 관리, 제품 개발,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설맞이 특별 이벤트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말 이틀간 발효테마파크에서 '설날맞이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여행에 나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순창에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관광을 넘어, 머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동안 발효테마파크에서는 뽕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설날 테마 만들기 체험,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현장 이벤트가 펼쳐진다.

더불어 테마파크 내 전시관과 체험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람 동선을 확장하고, 한복을 입고 방문한 이들에게는 특별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농산물 '설향' 딸기, 홍콩 첫 수출

남원시 대표 고품질 농산물인 '설향' 딸기가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시는 10일 춘향골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이성호 부시장과 시·도의회 의원, 정복도 및 농협 관계자, 수출 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적된 딸기는 남원산 설향 품종 1,440kg으로, 시가 약 5천만 원 규모로, 남원 설향 딸기는 모양이 균일하고 겉면에 윤기가 흐르는 선명한 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높은 당도와 적절한 산미가 어우러진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으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홍콩 선적을 기점으로 해외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수출 목표는 총 30톤, 약 4억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찾아 위로

남원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1일까지 남원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는다고 밝혔다.

김영태 의장과 김한수 부의장은 휴한기에 난방 등 어려움을 없인지 꼼꼼히 확인하며, 운영 여건과 예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영태 의장은 "남원시의회는 시민



삶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설 명절 맞아 환경 정비 추진

남원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시는 설 연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휴무 없이 정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시내 중심가와 전통시장, 청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해 명절 전후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성숙한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또한 관내 119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문과 및 시설물 파손 여부 △편의용품 비치 상태 △비상벨, CCTV 등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 작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임실군은 무릎관절증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임실군이 (재)노인의료 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다.

지원내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제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현 광통부(廣通樞)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